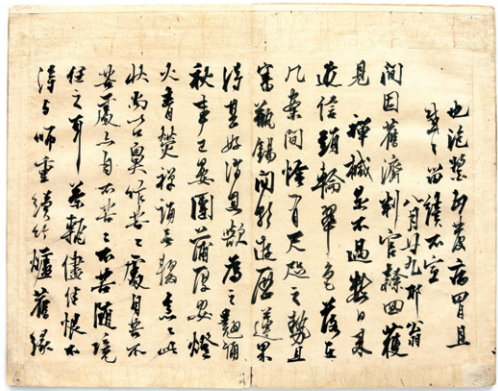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연화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는가”

추사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구 제주 판관으로부터 초의의 편지를 받았다. 그가 말하는 구 판관은 아마도 제주 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벽해타운첩)으로 인해 알려진 이 편지는 초의가 제주에서 물로 돌아간 후인 1844년 가을에 보낸 편지라 짐작된다. 이는 그가 초의의 편지를 받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받은 편지였다는 고백에서 드러난다.



벽해타운첩의 편지

“수행자리 편하며 등화 또렷한지요 나의 고풍과 불공은 상황에 맡길 따름”

그 사이 구 제주 판관이 돌아감으로 인해 그대의 편지를 받았습니디. 이는 불과 며칠 만에 받은 최근의 편지입니다. (그대가 계신) 두륜산의 푸른 나무들이 (그대의) 참선하는 자리 사이로 떨어져 있을 것이니 지적 간의 상황인 듯합니다. 또 그대가 노닐던 부처님의 연화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는가. 나를 위해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 수행의 자리는 편안하며 등화는 맑고 또렷한지요. 참선과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 나의 처지는 오히려 입과 코가 고통을 일으킵니다. 고통스러운 코와 입은 (코와 입) 스스로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럽지 않은 곳도 고통스럽지 않은 곳 스스로가 아프지

않는 것이니 고(苦)와 불고(不苦)는 그 상황에 따라 맡길 따름입니다. 보내주신 차는 모두 다 아름다운 가품(佳品)입니다. 그대와 오랜 차 인연을 이어 (차와 물의 품평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한 스럽습니다. (보내주신)포장은 위범을 둔화시키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이만 8월 29일 니움 (問因舊濟判官錄回 獲見禪杖 是不過數日來近信 頭輪翠色 落在几案間 恰有尺咫之勢 且審錫瓶間 頗遊歷塵界 得甚好消息 爲之翹誦 秋事已晏 團蒲厚安 燈火青熒 禪誦無輟 念念 此狀尚以口臭 作苦 苦處自苦 不苦處 亦自不苦 苦不苦 隨境任之 耳 茶輒佳佳 恨不得與師重續竹爐舊緣也 泡醬頓發病胃 且感感 留續 不宣 八月 廿九 那翁)

초의의 소식을 전해 받은 지 며칠도 되지 않은 늦가을, 차와 포장을 받았으니 그 감동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리라.

“그대가 노닐던 부처님의 연화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얻었는가”라고 한 추사의 인구는 제주에서 차와 불교를 함께 공부했던 초의와의 인연을 담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늘 벗의 수승한 수행의 경지를 기대했던 그는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 수행의 자리는 편안하며 등화는 맑고 또렷한지요. 참선과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는 것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벗이라 원래 이런 관계이다. 항상 보인(輔仁)과 괘목(掛目)을 도모하는 사이, 이것이야말로 지기가 된 이들의 목표와 가치였다.

척박한 제주의 환경은 추사의 건강을 허용하지 않았다. 코와 입병의 고통을 호소하던 추사가 초의에게 산이화를 보내달라는 간청은 이 병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달관된 그의 경지는 “고통스러운 코와 입은 (코와 입) 스스로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럽지 않은 곳도 고통스럽지 않은 곳 스스로가 아프지 않은 것이니 고(苦)와 불고(不苦)는 그 상황에 따라 맡길 따름”이라고 한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더구나 좋은 차를 받은 기쁨은 한없이 컸겠지만 벗과 함께 감상할 수 없으니 한스럽다는 말로 애를 표현한 그의 언어적 선택은 추사다운 추사학의 묘미라 할 수 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나눔과 봉사의 삶이 SMART한 삶”

이근후 (이화여대 정신과 명예교수)

최근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은퇴세대를 위한 책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바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이다.

책의 저자인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책 제목 그대로 평생을 즐겁게 살아왔다. 70대 후반의 그는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일곱 가지 병과 더불어 살면서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고 있다. 왼쪽 눈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협착, 담석, 통풍, 허리디스크를 앓는 “종합병원”이지만 열정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신체적 고통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 먹어 병들고 아픈 건 자연의 이치니까, 거기 맞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의료진과 가족의 반대에도 폐쇄적인 정신과 병동을 개방 병동으로 바꾸고, 사이코드라마 치료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인 1980년대부터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그 밖에도 보육원봉사, 시낭송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윗길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근후 명예교수. 이 명예교수는 1995년 정년퇴임을 앞둔 회갑자리에서 제2의 인생에 대해 마음을 먹었다.

“등산을 좋아해서 히말라야에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산 정상에 오르면 아래를 내려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회갑자리에서 그 점을 절실히 느꼈어요. 정년퇴임 5년을 앞둔 시절이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회학 교수를 한 아내와 의대 교수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교육과 봉사에 매진하고자 큰 줄기를 잡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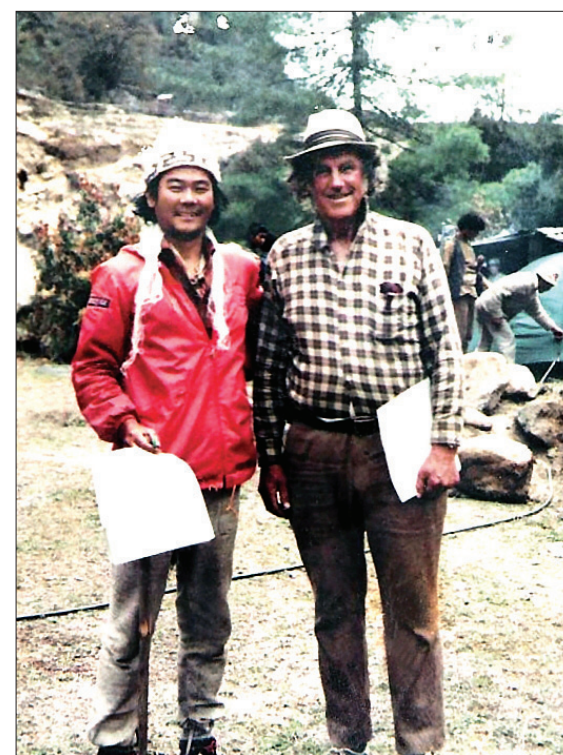
이 명예교수는 부인인 이동원(77) 이화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가족아카데미를 세웠다. 가족아카데미는 바람직한 가족 모습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100세 시대입니다. 가족 아카데미에서는 스마트하게 나이 들어가는 스마트에이징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근후 명예교수는 스마트에이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S’는 심플(Simple)이에요. 젊을 때는 상상력도 많고 창의력도 많은데 나이 들수록 단순해야 해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병이 나오. 그걸 단순화하면 병이 회복되는 거고요.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도를 깨웠다는 것은 단순화를 통한 집중력의 발현입니다. 수천 개의 번뇌를 하나로 집약해 에너지화 된 것이죠. ‘M’은 무브(Move)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A’는 감성적 즉 아티스틱(Artistic)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메말라 갑니다. 어른의 감성은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뛰어넘는 세련된 점이 있어요. 이를 잘 살려야 합니다. ‘R’은 릴랙스(Relax)로 일생 동안 앞만 보고 걸어왔으니 이제 여유를 즐기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T’는 함께 하는 삶, 투게더(Together)죠. 불교의 연기법이 바로 투게더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많은 유행무정의 인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을 잘 살피는 것이죠.”

이 명예교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가족의 해체와 개인의 소외에서 비롯된다며 이런 부분에 현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의 산에서 만난 힐러리경에 영감 얻어 사실 이 명예교수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네팔 의료봉사 당시 이근후 교수와 힐러리경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난 1982년, 한국산악회가 조직한 마카루 학술원 정대에 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콧중에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힐러리경을 만났습니다. 사비를 털어 오지 주민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짓고, 네팔 산림의 황폐화를 막는 자연보호운동에도 앞장서는 그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힐러리경과의 만남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명예교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빈국인 네팔이지만 네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수준은 우리의 예상을 상회함을 느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질은 어떤 삶이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병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이 명예교수는 1989년부터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해 20년 넘게 매년 1회 이상 네팔의 오지마을과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퇴임 후에는 학교있을때보다 대규모 의료봉사를 할 수 없기에 그는 교류활동을 위주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들이 질병 외에도 신변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는 환자를 좀 더 이해하고 면밀하게 살피기 위함입니다. 의료봉사를 진행하다보니 네팔 사람들의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 1995년 회갑자리서 나눔행 결심

### 가족아카데미 세우 가족 교육

### 1989년부터 네팔 의료봉사

### 실명 아픔에도 자비행 이어가

### 광명보육원 문화상담교육 진행

### 부처님 법은 주변살핌서 시작

### 자연 순응하는 안분지족이 답

한편으로 한국에 유학 온 네팔 학생들을 집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주며 지원하는 한편, 그들이 의사가 돼 고국에 돌아가면 자연스레 그의 의료봉사 활동에 동참케 했다.

이 명예교수는 네팔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 온 것이 돈벌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 한국에서 얻은 것을 고국에 돌아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한다. 그 덕분인지 그의 강연을 듣고 네팔로 돌아간 사람들 중 학교를 세우고 교장이 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

그들을 떠올리는 이 명예교수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나눔에 열정을 다하는 이가 지닐 수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2003년 의료봉사 후 트래킹 중 왼쪽 눈의 망막이 터져 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명예교수는 실명 또한 순리라고 담담히 말했다.

“서울 시민들에게 행복한가를 물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행복하다고 답할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불안 초조함 등에 더욱 시달리고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답합니다. 자연을 비롯한 환경에 순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저의 환경과 상황에 순응할 뿐입니다.”

### 국내 복지 활동도 꾸준히 진행

이근후 명예교수는 40년째 자신이 이사로 있는 광명보육원을 돕고 있다. 인연은 더 오래전에 맺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 명예교수의 어머니는 한국전쟁으로 대구에 피난 온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를 했고 이를 보면서 자신도 어른이 되면 그런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명예교수는 군의관으로 있던 1967년 근무지인



1969년 제1회 네팔의료봉사 때의 모습

## 94년도 보이차 茶

### 본초감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웠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94년도 산차 120g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행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 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풀고, 풍한(風溼)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찌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x 지름 7cm

◆ 가격 : 11만원 (택배비 무료)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 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물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감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천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